

한 장, 한 장 우표를 모으던 꼬마가 포기하지않은 40년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또한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한 분야에서 40년 동안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그마치 40만점이라는 미술자료를 수집한 한국미술정보센터 김달진 관장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미술 수집가의 인생을 살아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우표를 모으던 꼬마가 남들이 무심코 버리거나 방치하는 미술자료를 40년 동안 수집했고 대한민국 1호 미술자료 전문가가 되었다.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한국미술정보센터 전시장을 돌면서 그들의 역사와 삶을 설명하는 김달진 관장의 입에서 작가의 약력이나 활동년도를 거침없이 흘러나온다. 역시 대한민국 1호 미술자료 전문가다.

40년, 인생의 반이라 할 수 있는 긴 세월동안 미술자료 수집광에서 대한민국 1호 미술자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긴 시간동안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자기 평생 직업으로 일한다던지, 아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자기만족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회공헌 하는 일이 돼야겠죠. 그리고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되고 일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분야에 몰입을 하지 않는다면 남들과 차별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창한 계획보다는 한 단계 씩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아가다 보니 40년이라는 시간을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집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중고생 시절 평생 미술자료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 일일이 저를 소개하는 글을 신문, 잡지사에 유명 미술 평론가를 찾아 끊임없이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들 화신이 없었지요.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사에 김형운 편집장님께서 답장을 보내주시며 “좋아하는 취미가 취미로 끝나지 직업으로 연결되긴 힘들다.”라는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셨던 일이 생각합니다.

68 · February 2011



미술관 자료실에서 무려 15년이란 기간 동안 임시직으로 있었는데 심적으로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입사할 때는 정년퇴직 할 때까지 일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당시 임시직으로 4500원을 받으며 일하게 됐고 그 후 15년 일을 했습니다. 고졸이라는 학력에 미술 분야 학교를 나오지 않아 진급에서 제외됐죠. 공무원이라는 외형적 신분은 좋게 비춰질지 몰라도 그만큼 직장에서는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에 미술자료 수집을 포기할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안했습니다. 당시 딸이 아파 병원비가 부족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미술자료 수집을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술관을 알아봤고 15년 동안 있던 직장을 나

온다는 것에 대한 변화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가나화랑 자료실장으로 6년 동안 일을 하게 됐습니다. 2002년도에 개인연구소로 독립하는 계기가 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고 살아 가면서의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진 좌절과 쓴맛을 보고 난 후 늦은 나이에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의 자리에 왔는데 마치 김달진 관장님께서 차곡차곡 모아온 스크랩과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모아온 미술관련 스크랩자료는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씩 모아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하나의 미술역사를 대표하는 자료가 되는 것들입니다. 저 역시 미술자료 수집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미술관련 대학졸업장이 없으니 미술계에서 일하거나 진급의 문턱에 계속 걸려 결국 34살에 서울산업대학교(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과에 합격을 하게 됐죠. 대학 지원을 위해 아침에는 영어 학원, 저녁에는 미술학원을 다니며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가며 미술을 보는 안목과 작가의 마음을 알아가며 현재의 위치에 온 과정을 보면 그런 스크랩 자료들과 제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월간미술집지



1등 별이 빛나기 위해 2등, 3등 별이 빛이 난다고 하셨는데 관장님께서 별들을 빛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1등 별이라 하면 가장 빛나는 별이라 할 수 있는 유명작가들입니다. 박수근, 이중섭 화가들은 개인자료집이 많이 남아있어 대중이나 미술계에서 기억합니다. 하지만 동시대에 미술 분야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 작가들의 주변 또래들만 알고 서로 교류는 하지만 타계하게 되면 모르고 사라져 버리는 미술사에서 파묻히고 없어지는 존재, 지나가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들의 자료를 『월간 전시계』에서 일하며 79년부터 한국 근대작가작가 인명록을 연재하고 2010년 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을 만들며 31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미술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술 분야에서 넓은 반경을 함께 했던 2등 별, 3등 별이 든든히 존재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1등 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들에 대한 자료를 연구,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분야에서 인생에 멘토가 있다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 그 당시 홍익대학교 교수였으며 당대 최고의 미술평론가이신 인생의 멘토, 이경상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소개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연이 되어 어느 날 홍익대로 초대하셨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가 그동안 캠프지에 일일이 하나씩 붙여 모아온 자료를 유파별, 시대 흐름별로 분류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저의 열정을 알아 주셨는지 그 인연으로 1981년 이경상 관장님께서 덕수궁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오시고 저는 미술관 자료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 자료 그리고 아카이브展 전시장 한국미술정보센터

김달진 관장님의 남은 인생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수집한 미술자료가 워낙 방대해 현재 한국미술정보센터에 전시를 못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미술계, 일반인들에게 미술자료에 대해 안정적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한국 미술 역사를 활자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영구적인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를 제시해주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어 미술인들에게 희망과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기 보다는 실력을 쌓으며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 온 김달진 관장.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즐기고 있고, 좋아서 한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결실을 맺을 때 까지 그 길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갖지 않을 것이다.

김남현 기자